

촛불시위, 정권퇴진운동으로 가나

광우병 대책회의 “20일까지 재협상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불사”

광주·전남 시민단체 “추가 협상 기대 못해” 13~14일 촛불 집회

대규모 인파가 참여했던 '6·10 항쟁' 21주년 촛불집회가 정권 퇴진 운동이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촛불시위를 이끌어왔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20일까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 정부퇴진운동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책회의는 12일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보다 충실한 정부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0일간 촛불집회를 해 온 것처럼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쇠고기 수입반대라는 '이슈 투쟁'을 넘어 현 정부에 정면 반대하는 전면전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책회의 입장 변화에는 한달넘게 자발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지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6·10 항쟁' 집회에서 1987년 6월을 재연하듯 대규모 인파가 참여한 데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서 대책회의는 전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는 국민 절대다수의 간절한 요구가 완전히 수용되는 날까지 평화적인 촛불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확인한다”며 연속적이며 집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책회의의 정권퇴진운동이 그간의 촛불집회처럼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촛불시위의 발원지인 인터넷 토론장은 이 문제로 벌써부터 뜨겁다. 정권퇴진운동이 필요하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지만 더 이상의 시위확산은 자제해야 한다는 글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6·10 촛불집회 이후의 우리가 나아가 갈 길에 대한 제안'이라는 글을 통해 “촛불 집회 이후에 우리가 나갈 방향은 바로 중립적, 객관적, 상식적이어야 한다”며 “촛불 시위가 정권타도 및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달 넘게 집회가 계속됨에 따라 촛불시위대의 피로감도 더해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 11일 촛불시위에는 전남 대규모 집회때인 1천여명 안팎의 시민만이 모여 조용하게 집회를 끝냈다. 지금까지 열린 촛불집회규모 중 가장 작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과연 대책회의가 '6·10 촛불'과 같은 투

쟁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향후 쇠고기 정국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2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정부의 추가협상은 기대 이하 수준으로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3일과 14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시민·사회단체인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이영선 사무국장도 “미국 축산업계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도축확인서 등은 조작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 자율규제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이번 추가협상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민영화 문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방침에 대해 '재협상 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6·10행사가 마무리된 뒤 시민들이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국에 쇠고기 재협상 요구 어렵다”

최경림 외교부 정책국장 밝혀

최경림 외교교통상부 FTA(자유무역협정) 정책국장은 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토론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려면 월령(月齡)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는 힘들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립대에 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주제로 열린 광우병 위험 쇠고기 릴레이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엄격한 수입제한 기준을 적용할 과학적 조사결과를 가졌다면 미국과 또다른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준이 없어 OIE(국제수역기구) 기준에 따라 협상을 했다”며 “국민에게 적시에 충분히 협상의 배경이나 미국 쇠고기 안전성, 광우병 위험 정도를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최 국장은 또 “작년까지만 해도 조그만 뼈 조각 하나만 들어와도 호들갑을 떨던 정부가 갑자기 30개월 이상 뼈 포함 쇠고기까지 모두 수입하도록 결정하니 국민이 깜짝 놀라고

걱정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가 생각해도 정부가 미숙하게 협상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홍익대 법대 류종운 교수는 “현재의 WTO의 틀에서는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한다 해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재협상은 별다른 이익이 없이 국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어 “미국이 스스로 월령 30개월 이하의 쇠고기 수출을 사양하고 쇠고기 안전을 보장한다는 선언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野 “성난 민심 진정, 재협상뿐”

야당은 12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여전히 재협상이 성난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재협상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 등 강도가 누그러졌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부는 그동안 자장면을 시켰는데 하얀 면을 가져오거나 중업원을 바꾸겠다는 식의 동문서답 행보를 보였다”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들여오면 되

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이 재협상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이번 결과가 반드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과 정부가 재협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곤란하다면 추가협상이라고 얘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서상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이 교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민주당 부성한 부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을 통한 분명한 국민주권과 건강권 확보”라며 “시각을 벌면서 성난 민심을 돌리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추가협상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시국회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믿을 수 있는 결과 도출 기대”

한나라당은 12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밤미 ‘추가협상’ 발표에 대해 “양국 간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조운선 대변인은 “김 본부장의 밤미는 그간 정부가 추가협상을 위해 다각도로 국민의 뜻을 전하고 국회의원들도 지원 외교를 나선 연장선인 만큼,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확실한 협상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국민과 야당이 바라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기로 최선의 노

력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고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추가 재협상, 추가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이제 거리의 촛불이 민생의 등불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30개월령 차단 이끌어 낼 것”

청와대는 12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쇠고기 추가협상’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로서는 무리 부담이 있더라도 국민 불안을 씻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기준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은 안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김 본부장이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갖는 추가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합의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협상에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가서 추가협상을 벌이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나

오는 반응을 보면 그런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미국과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협상을 파기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자연 사랑!! 살고싶다

시행 : (주) 로베스테이트
시공 : (주) 지엔특개발

오랜기다림의 행복!!

'달양수복'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 관수 풀리다 기념
 - 집안, 실록, 생활시류 등 20% 할인
- 전입료 및 생활비도 특별지원
- 부지에 따른 후(후)회금 없음
 - 전세부담금, 계약부담금 등
- 전입 즉시 소환권 시전
-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담 세면
- 분양가격은 50~70% 대폭저렴
- 무시는 집
 - 달양수복사기회 2008년 6월 13일(금)부터

문의처 062) 251-4000 / 061) 383-2346

www.rovestate.com